

2015 제34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 일반공모전  
상세요강

v.20150401

## 제 1장 공모전 개요

### 1. 취지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건축 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하여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면서 범 건축인이 참여하는 뜻있는 국가적 행사가 될 것을 지향하였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국내 건축공모전으로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반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개최하였다.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건축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자한다.

### 2. 주제: 재생, 삶의 자치와 맥락을 잇다\_ **Re-Born**, Connecting Urban Life [별첨1. 해체 필독]

### 3. 공모 조직

- 3.1. 주최/주관: (사)한국건축가협회
- 3.2.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 4. 응모 자격

- 4.1.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적 상관없음)
- 4.2. 1인 1작품, 개인지원만 가능

### 5. 상세일정

내 용	일 정 (2015년)	비고
주제 공고	2월 23일(월)	
공고 및 접수	3월 2일(월)~5월29일(금)	
1차 작품 접수	~ 5월 29일(금) 까지	우편 및 현장 접수
1차 심사	6월 17일(수) 오전10시	예정
2차 등록(1차 합격자에 한함)	6월22(월)~26일(금)	
2차 작품접수(2차 등록자에 한함)	9월 중순	예정
3차 심사 및 최종 결과발표	9월 말	예정
시상식 및 전시회	10월 16일(금)~25일(일)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막식

※ 상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하여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 6. 심사

### 6.1.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6.1.1. 건축전문가 6인+타 분야 전문가 1인(ex 인문, 문학, 예술, 과학 등)

### 6.2. 심사기준(공통)

6.2.1 심사위원은 첫 번째 모임에서 1명의 심사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방법 및 당선작에 대하여 검토,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지원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2.2. 프로그램을 통한 건축완성 능력

6.2.3. 서론(issue)부터 해답(solution)까지의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과정

6.2.4. 주제 관련 적합성 및 독창성

6.2.5. 심사위원들은 최종평가 후 심사평을 제출한다.

### 6.3. 심사위원(가나다 순)

성명	소속	직책	비고
이재훈	단국대학교		
임형남	가온건축사사무소		
전영훈	중앙대학교		
이소진	아뜰리에리옹		
윤재민	JMY Architects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심사위원에 대한 구체소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참가비

7.1. 1차 작품등록비: 4만원(한화) / (환불불가)

7.2. 2차 작품등록비: 3만원(한화) / (환불불가)

7.3. 주의사항: 결제 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카드 및 통장으로 결제 요청

## 8.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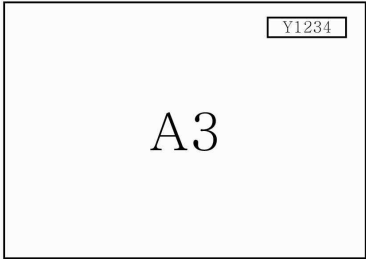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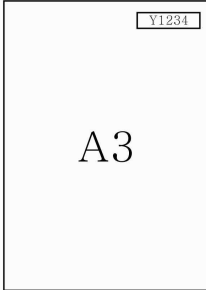
- 8.1. 대상 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한화)
- 8.2. 우수상 3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200만원(한화)
- 8.3. 특선 약간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100만원(한화)
- 8.4. 입선 다수: 상장 및 상패
- 8.5. 상금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세법에 따름

## 9. 기타규정

- 9.1. 지원자는 공모전에 참가등록을 함으로서 이 규정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지원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9.2. 1차 작품은 반출하지 않습니다.
- 9.3. 1차 작품과 2차 작품의 작품제목 및 개념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 9.4. 등록확인 및 지원자의 인적사항, 작품제목(ID 및 PIN제외)등 은 홈페이지 로 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수정은 등록 기간 중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5. 지원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공모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또는 타 공모전에 지원했던 작품이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공모전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상(선)을 언제라도 취소합니다.
- 9.6. 접수 작품에는 자신의 PIN 번호 이외에는 지원자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표시(학교, 이름 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9.7. 작품의 저작권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작품집, CD제작 및 기타 홍보 등에 지원자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주최 측인 협회와 후원사에게 귀속 됩니다.
- 9.8. 작품집 제작 및 전시를 위해 본 협회에서 입상(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9. 질의/응답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받으며,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9.10.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및 추가사항들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수시로 방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당해년도 건축대전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른다.

## 10. 1차 작품접수

- 10.1. 사이즈: **A3 2매(420mm×297mm)**  
(단,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 처리하며, 폼 보드 부착 금지)
- 10.2. 공식 언어: 한국어와 영어
- 10.3. 계량 단위: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 10.4. 내용: 가로, 세로 구분 없이 그림, 사진, 스케치, 텍스트 등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념위주로 구성한다.(개념위주란 최종결과물이 아닌, 문제제기와 앞으로 풀어갈 방향성 등을 건축적으로 제시함)
- 10.5 **PIN번호:** 평가 시 익명성을 위해 A3 2매 모두 **우측상단에** 접수 시 사용한 PIN번호를 **가로(4cm)×세로(1cm)** 박스 안에 **흰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기입

예시1(가로형)	예시2(세로형)
	

- 10.6. 익명성: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원자는 접수 시, 자유롭게 PIN 번호( 첫 글자 대문자 알파벳 1자와 나머지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선택하며, 1, 2차 결과발표는 PIN 번호로 발표함.

## 10.7. 제출 방법

- 10.7.1. 접수형식: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단, 우편접수 시 마감일 소인까지이며, 등기로 발송 후 영수증 보관)
- 10.7.2. 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6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15호 (사)한국건축가협회 일반공모전 담당자 앞

## 11. 2차 작품접수

- 11.1. 1차 합격자는 **건축모형** 및 **포트폴리오**를 제출함.
- 11.2 **모형사이즈**  
**미정 (추후공지 예정 / 2015년 5월 중순)**
- 11.3. 모형제작 조건  
외부 4면으로 전시되므로 배면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 구조물이나 전시 벽이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작품 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

#### 11.4. 예외사항

2차 작품접수 시 지원자의 거주지가 해외일 경우, 모형 이미지와 동영상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

동영상(1분 이내)와 사진 6매(300dpi, 각 a4사이즈)

(사진 및 동영상에 사용된 이미지는 반드시 제작한 모형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며, 모형제작 이미지가 없을 시 심사에서 실격됨)

#### 11.6. 기타

해외거주자가 2차 작품심사에 통화 후 3차 공개평가에 참여 시 반드시 모형을 가지고 참가해야함(해외거주자 3차 공개평가 참여 시 국내체류비 지원 예정)

### 12. 3차 공개평가

12.1. 대상: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

12.2. 발표시간: 발표5분, 질의응답 5분

12.3. 발표형식: 파워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5분 구성

(단, 음향 지원 가능하며, 동영상 사용 가능하되, 발표시간 5분 엄수)

12.4. 파일제출: 공개평가 1주일 전까지 제출하며, 심사 당일 변경 금지

12.5. 발표언어: 영어 또는 한국어

## [별첨]

주제: 재생,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 Re-Born, Connecting Urban Life

### 해제(解題)

산업화로 도시들에서는 교외화가 지속되고, 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자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지구가 지정되었다. 재개발은 본래 올바른 필요에서 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을 우선하는 자본의 속성에 따르기 쉽다.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의 커로 누적되어 온 삶의 흔적들을 지워버림으로 인해, 도시는 장소성을 상실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자 대규모 재개발의 수요가 줄어드는 한편,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고자 하는 성찰적 자의식도 자라났다. 오늘날 재개발의 대안적 방법으로서 도시재생은 이제 관심의 차원을 넘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의 북촌을 위시해 많은 지역에서 재생을 통한 자본과 자생적 문화와의 공간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한옥이 보존되었으되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가파르게 오른 임대료로 인해 오래된 상점 주인들이 떠난다면, 재생의 본질은 지켜진 것인가. 재생은 필연적으로 자본화된 문화와 자생적 생활문화 사이의 충돌을 일으킨다. 초기의 자본은 토착문화와 타협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본의 집적이 이루어지며 문화를 지우는 속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재생은 외부의 힘을 빌려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문화시설을 계획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주체인가, 적정한 개발의 속도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같은 질문에 답하는 일이기도하다.

생물체에는 몸의 일부를 상실할 경우, 그 부분의 조직이나 기관을 다시 만들어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재생(Re-generation)이라고 한다. 생물에 따라서는 기능이 변형되어 복구되기도 한다. 주제를 Re-Born으로 번역하는 것은 가치 회복의 차원을 넘어 보다 창조적인 해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몸(도시) 전체의 재생에는 체질 개선 같은 한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반면, 장기(건축) 같은 부분 손상에는 과감한 외과적 수술도 필요하다.

주제를 도시재생 하지 않고 ‘재생’이라고 한 것은 도시라는 ‘대상 보다는 재생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도시라는 맥락 안에서 사유하되 보다 작은 단위에서 실재적인 해법을 주문하는 것이다. 건축은 대상과 주체, 시간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공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물리적 계획이다. 도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실재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 예상되는 프로그램

좋은 도시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작은 건축에서 도시적인 스케일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과제 접근 방식에 대해 열려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 안에 해결방법도 있다는 살아있는 생활 세계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실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유하기를 기대한다. 철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한 현실적인 대안과 아이디어나 개념에 집중한 작업도 모두 가능하다. 사람들 간의 시간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에 집중한 기획가의 작업도 존중된다. 건축이 아닌 관련 또는 타 분야의 참여도 가능한 이유이다. 몇 가지 접근 방향에 대한 예시는 대상 영역을 한정하려 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향에 대해 열려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 현실적 대안과 이상적 대안

작은 영역을 대상으로 주의 깊은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 가능한 현실적 대안도 좋은 작업이다. 역사적인 장소 뿐 만 아니라 70, 80년대에 만들어진 평범한 가로들도 중요한 대상지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비현실적이지만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안도 좋은 도시가 포섭해야 할 내용이다.

### 건축적 접근의 예시

건축은 대상과 주체, 시간과 이해관계의 변화에 대해 공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물리적 계획이다. 도시건축의 다양한 담론들도 건축을 이루는 질서와 실재적인 구축을 통해서 건축 안으로 들어온다.

### 도시적 접근의 예시

도시적 맥락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전략을 시각적 매체를 통해 표현하다. 건축은 개념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는 도시공간의 변화를 촉발하는 도시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운영시스템으로서의 접근 예시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 운동이 주민을 주축으로 내부적으로 보다 긴밀하게 운영되고 외부로도 홍보, 협력, 연계할 수 있는 체계와 지침, 절차 등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을 시각화한 형식으로 제시 할 수 있다.